

## 통역사의 능동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리콰르와 아렌트를 중심으로\*

윤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이향(한국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통역사가 지켜야 하는 원칙 중 중립성(neutrality)만큼 견고한 것이 있을까? 통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절대 원칙으로 여겨져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통역사들이 이를 당연한 직업윤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통역사가 때로는 통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가 된다. 특히 통역사의 중립성 원칙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통역사는 중립적 매개자이며,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역사가 어떤 현장에서든 절대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가?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역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뜨거운 논쟁과 성찰의 대상이었다.<sup>1)</sup> 특히 90년대 이후 다양한 통역 현장(병원, 법원,

---

\* 본 연구는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통번역학에서의 윤리적 진화(ethical turn)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

난민심사장, 분쟁지역 등)이 통역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립성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복잡한 통역 상황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시작되었다. 통역사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경우 통역사는 독립된 주체로서 결단하고 행위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중립성’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통역 윤리, 즉 통역사의 윤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통역사가 단순히 화자의 발화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 도관(language conduit)에 불과하다면, 통역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결정, 더 나아가 윤리적 결단을 논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통역사의 역할과 책임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의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이 어떤 윤리원칙을 토대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성찰(혹은 논쟁)<sup>2)</sup>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통역을 포함한 언어적 중재 행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러한 담론들은 실제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중립성 원칙은 여전히 견고하게 고수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윤리 담론이 가지는 사변적 무게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철학, 그중에서도 윤리학과 닿아 있는 무겁고 철학적인

---

져 왔으며 *The Translator,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등 몇몇 학술지에서는 윤리 문제를 특별히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 2) 통번역 윤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핵심적 연구로 베이커(Baker, 2006)와 뎀(Pym, 2012)을 언급할 수 있으며 두 저자 간의 논쟁(의견충돌)은 잘 알려져 있다. 베이커(2006)는 번역사와 통역사가 단순한 언어 중개자가 아니라 특정 서사(narrative)를 구성하고 유포하는 능동적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뎀(2012)은 협력(cooperation)과 상호이익(mutual benefit)에 기반한 윤리 모델을 제안하면서 문화 간 소통의 조건을 성찰한다. 뎀(2016)은 베이커의 윤리론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점을 들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두 윤리론의 충돌에 관해서는 이항(2017)을 참고한다. 한편 국내에서 윤리 문제를 직,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통역사가 다양한 방식의 개입(첨가, 삭제, 수정, 의도적 누락)을 통해 의미적, 화용적 등가를 달성하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을 실증적 데이터로 입증한 이민(2017), 2차 저작물로서의 통역의 저작권 개념을 직업윤리와 연결한 박지영과 임향옥(2021), 사법 통역인 중립성 개념의 교육적 효과 등을 연구한 정철자(2020), 법정통역사의 역할을 다룬 Choi(2011)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주제이며,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원칙이나 규정으로 다듬어 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중립성 원칙<sup>3)</sup>이 끈질기게 고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리적, 실무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통번역사 윤리규정 (code of ethics)은 대체로 통번역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Yun & Lee, 2020, p. 706). 즉 통역사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그 안에서 통역사가 담당하는 책임, 윤리 등의 문제보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 통역 품질 등이 오랫동안 중심화두였다(Grbić, 2014, p. 93).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성 원칙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견고함을 뚫을 두터운 논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립성 원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통역 윤리 담론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중립성이라는 전통적 원칙을 보완, 혹은 반박하는 키워드들, 가령 통역사의 해석(interpretation), 개입(intervention), 능동성(agency),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헌신(commitment), 약자옹호(advocacy) 등을 차근차근 검토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중 통역사가 능동적 행위의 주체임을 설득할 논거를 마련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역이 능동적 행위라는 것이 부정되면 통역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헌신, 약자옹호 등을 논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능동성은 주체성(subjectivity), 정체성(identity)과 부분적으로 겹치며 저자 및 학문분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와 의지대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을 지칭한다.<sup>4)</sup> 통역에 적

---

3) 본고에서 ‘중립성’으로 칭하는 가치 역시 여러 층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으며 그 지적에 동의한다. 본고에서 중립성은 ‘중립적 통역사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앙겔렐리(Angelleli, 2004)의 연장선에서 통역사를 비가시적, 수동적 언어 도관으로 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립성이다. 중립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는 중립성을 반박하는 키워드로서의 ‘해석’과 ‘개입’을 다룬 선행 연구인 이향과 윤성우(2025)를 참조한다.

4) agency는 늘 agent를 상정하며, 이런 이유로 한 심사자는 능동성을 ‘행위성’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행위성으로 옮길 경우 자연스럽게 행위의 주체를 행위자(agent)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본

용하면 통역사 스스로가 현장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논거를 통번역사의 직업 세계가 아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즉 통역을 포함한 직업적, 실무적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윤리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지적, 언어적 행위의 본질에 천착해 온 두 철학자, 리코르(Ricoeur)와 아렌트(Arendt)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사상가의 방대한 작업에서 본고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떼어내 주제화하는 데에는 분명 위험부담이 따른다. 두 철학자가 애초에 통역사라는 직업군을 염두에 두고 윤리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코르와 아렌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를 필두로 하는 20세기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sup>5)</sup>의 자장(磁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철학자는 인간의 주체성과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언어)과 행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서 다루는 리코르와 아렌트의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압축적인 형태가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번역사를 제외한 통역사에 집중할 것이며, 본고에서의 통역사는 국제회의장만이 아닌 다양한 현장의 통역사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통역학 내에서 중립성 윤리를 비판한 연구자들의 핵심 주장을 개괄한다. 제3장에서는 리코르 철학에서 드러나는 인간 의지와 행위, 그리고 윤리에 대한 고찰을 통역 현

---

고에서 일단 ‘능동성’이라는 번역어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행위성이 비인간 행위자(가령 라투르의 ANT)에도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향후 더 좋은 번역어를 고민해 볼 기회를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 5) 서양 근대철학은 세계 인식의 근거를 주체 안에서 찾는 주체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의 언어 철학적 전회(linguistic turn)는 그 주체와 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언어’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러셀, 비트겐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의미 분석철학,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해석학, 소쉬르의 유럽 구조주의 언어학은 그 대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향은 대략 1930년대부터 1970-80년대까지 지속되며 아렌트와 리코르는 주체를 타자에 대한 윤리·정치적 책임의 담지자로 재정립한 대표적 저자들이다.

장에 대입시켜 본다. 제4장에서는 아렌트 철학에서 능동성, 정체성 등의 개념을 통역 상황에 적용하여 고찰한다.

## 2. 중립성 신화의 균열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난민심사장이나 병원, 법정, 분쟁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는 이민자가 많은 북유럽이나 영미권의 연구자들이 커뮤니티 통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통역학이 확장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저자인 바덴쇼우(Wadensjö), 앙겔렐리, 잉그힐리(Inghilleri)의 논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통역연구자 바덴쇼우는 기존 통역연구가 회의통역사(동시통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치중한 결과, 원 발화자만이 의미 생산의 유일한 주체로 간주되는 독백적(monological) 통역 모델이 지배적 프레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Wadensjö, 1998/2013, p. 8).<sup>6)</sup> 저자는 이주민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역은 종종 대화적(dialogic) 성격을 띠는 사실에 주목하며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통역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낸다. 스웨덴어-러시아어 이민 심사 및 의료면담 현장의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통역사는 면담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단순한 언어적 매개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통역 상황에서 의미는 원 발화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구성(co-constructed)된다(Wadensjö, 1998/2023, p. 41). 실제로 대화통역사(dialogue interpreter)는 원 발화를 반복, 강조, 요약하거나 첨언하고, 더 나아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상황 전체의 조율자 역할을 한다(Wadensjö, 1998/2013, pp. 146-147). 따라서 통역학은 원 발화를 구성하는 언어적 단위를 넘어서서 통역사의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남

6) 이 책은 1998년 롱맨에서 출판된 후 내용변경 없이 2013년도에 라우트리지에서 출판되었다.

(interpreter-mediated encounter),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소통행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Wadensjö, 1998/2013, pp. 42, 60-61). 여기서 독백이 아닌 대화의 과정에서 통역사가 하는 모든 행위(강조, 침언, 생략, 요약, 분위기 조정 등)는 명백하게 통역사의 능동적 역할을 드러낸다. 하지만 바덴쇼우는 이러한 능동성을 현장의 관찰을 통해 확인할 뿐 이를 통역 윤리로 확장하여 주제화하지는 않는다.

안겔렐리는 자신의 연구대상을 애초부터 ‘통역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사건(ICE, Interpreted Communicative Event)’으로 규정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회의통역, 법정통역, 의료통역 현장을 폭넓게 관찰한다(Angelelli, 2004a). 저자는 통역사가 중립적, 비가시적 존재여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을 비판하면서 바덴쇼우와 마찬가지로 통역학이 회의통역 중심의 폐쇄적 연구 경향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sup>7)</sup> 그 일환으로 통역의 대인관계 역할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인 IPRI(Interpreter's Interpersonal Role Inventory)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3개 국가의 회의통역사, 법정통역사, 의료통역사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저자는, 통역사들은 현장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가시성(visibility)을 지닌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역 상황에서 명백하게 열위에 있는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도록”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Angelelli, 2004a, p. 26). 미국 병원 소속의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 저자는 의료통역사 역시 상황에 따라 가시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Angelelli, 2004b, pp. 83-84). 가령 의사와 환자 간 지식의 비대칭을 감안하여 대화의 공동참여자 또는 공동구성자(co-participants, co-constructors)로서 정보의 흐름을 관리(통제)할 뿐 아니라 환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Angelelli, 2004b, pp. 67, 108). 이는 통역사가 모종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나 환자의 명시적 요구가 없어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환자(약자)와 소통하고 그를 옹호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함을 의미한다(Angelelli, 2004b, pp. 88, 96-97).

한편 잉그힐리는 판타나모 수용소에서 이라크 전쟁 포로 심문 과정에

7) 통역학이 회의통역 연구에 치중하게 된 역사적 맥락에 관한 연구로는 이항(2023)을 참조한다.

투입된 통역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다(Inghilleri, 2008, pp. 212-213). 분쟁 상황에서 포로의 고문이나 심문에 투입된 군 통역사는 통역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위 사례 속의 통역사는 결국 통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한편으로는 군 당국을 대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포로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심문당하거나 취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옹호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 당국에는 저항으로 비취질 수도 있음에도 통역을 중지하기로 결단한 것은 통역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결정이다. 다른 연구에서 잉그힐리는 이라크 전쟁 중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목격한 통역사가 동일한 폭력이 반복되면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한 사례를 언급한다(Inghilleri, 2012, p. 110). 여기서 우리는 능동성과 약자옹호에 걸쳐 있는 통역사의 주체적 결단, 즉 포로, 전쟁 중의 자국민 등의 약자를 옹호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통역사를 목도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통역사의 능동적 행위를 부각시키고 중립성 개념의 한계(혹은 협소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능동성이 약자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 사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역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능동성을 설명해 내려면 통역사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간 본연의 책무와 윤리,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리콰르 철학에서의 능동성

리콰르는 인간 주체의 능동성을 행위에서 찾는다. 인간의 행위 중 리콰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의지적 행위로, 첫 주저 *Philosophie de la volonté I: Le volontaire et l'involontaire* 에서 아래 3단계로 의지적 행위를 설명한다.<sup>8)</sup>

8) 리콰르와 관련된 모든 인용은 프랑스어 원문을 필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혀 둔다.

첫째, 인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모종의 결정을 한다.

둘째, 인간은 그 결정을 몸으로 실행한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결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다. (Ricoeur, 1950, pp. 10-11)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전제한다. 모종의 결정이 존재했음은 실행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몸을 움직여 실행하지 않은 결정은 기획되고 존재했으나 무의미하다. 인간의 결정은 행위를 통해 검증되고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icoeur, 1950, p. 188).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이며, 인간은 오직 행위를 통해서만이 자신다움, 나임을 구축하고 증명해 나간다. 따라서 행위가 바로 나이며 나의 행위가 아니고서 내 존재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Ricoeur, 1950, pp. 56-5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능동성이나 주체성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함으로써 구축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했는가 아니라 누가 행위했는가이다. 이를 통역이라는 특수한 언어적 상황에 대입하면 통역사는 애초에 언어가 통과하는 단순한 도관으로 머무를 수 없다. 물론 통역사의 발화는 원 발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통역사의 행위가 없다면 그 발화는 완성(전달)되지 못한다. 원 발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통역사의 통역이 없이는 원 발화가 진정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원 발화가 언어간 소통의 필요조건이라면 통역사의 발화는 충분조건이다. 다시 말해 통역사는 원 발화자와 함께 또 하나의 온전한 발화 주체이다. 바덴쇼어나 양겔렐리가 통역을 통역 참여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거나 통역사를 공동구성자 또는 공동참여자로 정의할 때 ‘공동’과 ‘상호’는 능동적 통역사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을 제차 확인시켜 준다. 통역사는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행위하는 또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

인간의 의지적 결정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리코르 의지철학의 핵심이라면, 그의 언어철학은 주체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성찰이다. 실제로 1960년부터 30여 년간 리코르를 사로잡았던 화두는 상징, 은유, 담화(discours), 텍스트, 이야기, 번역 등 주로

언어를 둘러싼 문제들이었다.<sup>9)</sup>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기술하면서 리코르는 언어가 탁월하게 지향적(指向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언어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Ricoeur, 1983, p. 118)

언어의 본질, 언어의 제1 기능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언어가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다. (Ricoeur, 1969, pp. 85, 96)

담화는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행위이다. (Ricoeur, 1986, p. 110)

위 인용문을 관통하는 것은 언어의 외부지향성이다. 언어는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기회귀적이지도 자기지시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언어가 자신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어디까? 그것은 ‘세계’, 즉 언어에 담겨 있는 세계이다. 텍스트 세계(*le monde du texte*)<sup>10)</sup>라는 개념을 천명할 때 리코르가 구해내고자 했던 것은 담화, 텍스트, 이야기, 언어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었다. 이것을 통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원 발화를 있는 그대로 통역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

9) 이 시기의 대표적 저서로는 *La symbolique du mal*(1960), *Temps et récit I*(1983), *Du texte à l'action*(1986), *Soi-même comme un autre*(1990) 등이 있으며 이 저서들은 차례로 『악의 상징』(1994, 양명수 번역), 『시간과 이야기 1』(1999, 김한식·이경래 번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2002, 박병수·남기영 번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2006, 김용권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 소개되어 있다. 다만 본문에서 인용된 대목들은 번역서의 번역이 아닌 필자의 것임을 밝혀 둔다.

10) 텍스트 세계는 리코르 해석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리코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사태”(Ricoeur, 1960, pp. 483-484); “가장 고유한 우리의 (존재)가능성들에 부합하는, 다르게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부합하는 또 다른 세계”(Ricoeur, 1971, p. 193); “한 작품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작품이 기획하는 세계 그리고 그 작품의 지평을 구성하는 세계”(Ricoeur, 1983, p. 121); “텍스트에 의해 펼쳐진 의미 있는 제안들”(Ricoeur, 1986, p. 54).

그러나 언어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통역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은 원 발화자의 발화 그 자체가 아니라, 원 발화자가 가리키는 사태 또는 실재(reality)이다. 다시 말해 말이 가리키는 세계, 말하고자 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말해야 하는 바인 것이다(Inghilleri, 2003, pp. 257-258). 그것이 통역사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표명되어야만 원 발화자의 존재도 제대로 드러난다. 특히 권력의 비대칭이 심한 통역 상황에서 소통 약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세계를 전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약자가 드러내려는 세계는 충분히 경청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역사는 약자의 세계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가령 난민통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통역사는 단지 언어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 그 경험을 재구성하려는 노력 모두를 담아내야 할 때가 있다(Inghilleri, 2012, p. 85). 이 경우 통역은 일종의 능동적 약자옹호가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리콤폴르의 의지철학과 언어철학을 토대로 통역사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원 발화가 완결되고, 원 발화자의 언어가 품은 세계를 드러내 주는 중요한 역할이 통역사에 주어진다라는 점을 추론해 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역사의 능동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거의 일부를 리콤폴르 윤리학에서 찾아낼 수 있다. 리콤폴르는 자신의 윤리학을 “정의로운 제도들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좋은 삶(*la vie bonne*)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icoeur, 1990, p. 202). 여기서 우리는 리콤폴르 윤리학의 출발점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지향 또는 소망이라는 것, 그러한 삶은 타인을 위하고 타인과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정의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삶, 타자, 정의로운 제도를 하나씩 검토해 보자.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은 근원적이다. 하지만 리콤폴르에 따르면 그 소망은 독백적이기보다는 대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상호 주체적이고 상호 행위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타자는 시혜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다른,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지닌 존재이다(Ricoeur, 1990, p. 219). 역으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대체 불가능한 타자로 존재한다. 타자를 위하고 타자와 함께 하는 좋은 삶은 다른 주체와

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좋은 삶이란 결국 각자가 가진 타자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교환하면서 상호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통역 상황을 생각해 보자.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어떤 원 발화자(타자)가 통역이라는 사건의 출발점에 있다. 통역사 역시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채로 통역에 임한다. 원 발화자는 통역사의 능동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발화를 완성한다. 결국 원 발화자와 통역사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대칭적, 상호적 파트너인 것이다.

그런데 리콰르는 타자와 나의 좋은 삶, 통역사와 원 발화자의 좋은 삶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의로운 제도’를 언급한다. 리콰르에 따르면 정의로운 제도는 구성원들이 권한이나 권리를 공정하게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의무나 당위까지 공정하게 짊어지는 제도이다(Ricoeur, 1990, p. 227). 다시 말해 리콰르적 의미에서 정의는 모두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정치적 정의뿐 아니라, 의무에서도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 새치기는 금지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며,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말의 자유를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는 등 절차상, 제도상의 정의를 포함한다.

정의로운 제도를 통역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도와 절차의 미비로 인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로 신체적,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공동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의, 부정의에 가깝다.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모국어로 신체적 아픔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없다면 좋은 삶은 불가능하다. 가령 이주민이나 난민통역 상황에서 이주나 비호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호소할 수 있도록 통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이나 공동참여의 가능성은 애초에 차단되고, 이는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다. 전쟁통역의 상황에서 군 통역사가 더 이상 통역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는 피심문자가 처한 상황이나 제도가 부정의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정의로운 제도는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다는 점에서 약자옹호의 윤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역학에서의 윤리적 전회는 상호작용과 상호구성으로서의 좋은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탐색, 즉 ‘제도적 전회’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 4. 아렌트 철학에서의 능동성

리콥르가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 타자와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윤리적 인간에 몰두했다면, 아렌트는 말(speech)과 의견(opinion)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천착했다.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정치의 약속』,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로 이어지는 아렌트의 역작들은 이 주제에 대한 오랜 성찰의 결과물이다. 아렌트의 방대한 철학에서 능동성 및 약자옹호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렌트는 인간이 자신의 인간됨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과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렌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라는 물음은 나는 무엇인가?(What am I?)라는 물음과 다르다. 무엇임(whatness)은 제작된 사물이나 창조된 존재의 본질이나 본성을 묻는 것인 반면, 누구임(whoness)은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정체성(identity)에 관한 것이다 (아렌트, 2017, p. 77). 당연히 아렌트가 천착한 것은 누구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인간의 무엇임은 무게, 질량, 부피, DNA, 인종, 남녀, 피부 색깔 등 물리·생물학적 요소들로 규정되겠지만 이런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요소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천성”일 뿐이다(아렌트, 2006, p. 540). 인간이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임’이며, 이는 말과 행위,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story, narrative)<sup>11)</sup>에 의해 구축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누구임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방해나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렌트의 전체주의 비판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핵심 저작인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말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자의 능동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1) 여기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말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는 행위하는 자의 누구임을 드러내는 성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잃는다. 말 없는 행위는 행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행위자는 그가 동시에 말의 화자일 경우에만 행위자일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고 행위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누구임(정체성)을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드러낸다. (아렌트, 2017, p. 268)<sup>12)</sup>

스스로 내린 결정을 몸으로 수행하는 것이 리콰르의 능동성이었다면, 아렌트의 능동성은 말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능력이다. 아렌트에게서 말은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정보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드러남(self-appearance) 또는 자기현현(self-revelation)의 핵심 기제이다(Yun & Lee, 2021). 행위자의 능동성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누구임을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오직 말과 행위, 말로서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아렌트의 주장을 통역 상황에 대입해 보자. 원 발화자는 자신의 누구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통역사 또한 자신의 통역(발화)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된다. 통역사의 통역사다움은 그가 통역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말과 행위, 말로서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통역사마다 동일한 발화를 다르게 통역하는 이유는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단어, 문장,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역하는 사람의 ‘누구임’, ‘통역사다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의사, 심의관, 난민심사관, 심문자에 비해 외국인 환자, 이주민, 난민, 전쟁포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통역사의 능동적 조력이나 매개 없이 이들은 타자로서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통역사들은 중립적 전달자를 넘어서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전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환자, 이주민, 난민 그리고 포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야말로 아렌트가 말한 (약자와 소수자로서의) 타자의 관점, 타자의 입장인 것이다. 통역사가 이러한 타자들의 세계를 제대로 전달해 낸다면, 타자들은 공적 공간에서 비로소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12) 이하에서 인용하는 아렌트의 저서들은 모두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번역은 역서에 있는 그대로이다.

점에서 말과 행위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일은 주체의 누구임을 확보하는 것  
임과 동시에 통역사의 경우, 타자, 특히 취약한 타자의 입장과 관점을 되살  
려내는 일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아렌트가 취약한 타자의 실상과 현실에 직접적으로 주목함으  
로써 그들의 능동성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아렌트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인간 복수성(human plurality)은 정치와 권력을 새롭게 정의함으  
로써 약자의 반대축에 서 있는, 다시 말해 권력의 비대칭 상황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는 자들에게 정치의 본질을 아래와 같이 환기시킨다.

정치는 인간의 복수성에 기초한다. (아렌트, 2005, p. 132)

단수의 인간은 비정치적이다. 정치란 인간들 사이에서, 즉 단수의 인간  
외부에서 생겨난다. [...] 정치란 인간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관계로서  
성립된 것 안에서 일어난다. (아렌트, 2005, p. 134)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각자의 세계 안에  
서 입장과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복수의 인간이 자유롭게 서로의 입  
장과 관점을 교환하는 것이야말로 아렌트적 의미에서 정치의 본질이다. 자  
유로운 말과 의견을 가진 자들이 함께 행위하는 것(acting in concert)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아렌트, 2007, p. 102). 이는 정치 및 권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  
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다른 관점을 가진 자의 저항이나 반박을 불가능하  
게 만드는 절대적 지배관계는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권력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복수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의  
견을 교환하며 행위하는 가운데 생겨난다. 따라서 이들이 흩어지면 권력도  
사라진다(아렌트, 2017, p. 292).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은 설득하기보다 폭력으로  
사람을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전(前)정치적(pre-political)으로 사람들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아렌트, 2017, p. 96)

폴리스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요성이나 타인의 명령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관계에 내재하는 불평등에서 벗어나서 지배와 피지배 둘 다 존재하지 않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렌트, 2017, p. 103)

공동체 안에는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자라온, 그래서 세계를 다르게 보는 복수의 존재들이 모여 있다는 현상학적 관찰에서 출발한 인간 복수성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정치, 말과 의견에 기반한 수평적 공론장으로서 정치를 구상하게 한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의 다양한 양상을 말과 행위를 통해 교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약자의 입장과 관점이 옹호되는 것이 좋은 정치의 본질일 것이다.

이를 언어간 소통에 적용해 보면 인간 복수성은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소통, 해석, 통역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포함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통역이야말로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 5. 결론

인간 주체의 의지적 행위, 좋은 삶과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리콰르의 윤리적 성찰, 그리고 인간 다원성, 타자 관점 회복을 중심으로 한 아렌트의 정치철학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통역사의 능동성을 근거 짓는다. 리콰르는 좋은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의한 절차와 제도를 비판하면서 약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절차적 공정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반면 아렌트는 말의 자유, 의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인간 복수성과 다원성이 위협받게 됨에 주목한다. 그 복수성 안에는 경청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들의 자리와 목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약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게 하는 허울뿐인 중립성에 아렌트는 반대한다.

아테네의 법률은 시민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허용하지 않았다. 당  
파싸움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했다.  
(아렌트, 2017, p. 82, 각주 10 재인용)

불의(不義)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당신은 억압자의 편을 택한  
것입니다. 꼬끼리가 쥐의 꼬리를 밟고 있다면, 쥐는 당신이 취한 그 중  
립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투 주교, Brown, 1984, p. 19에서 재  
인용)

위 인용문은 기계적 중립의 윤리적 한계를 드러낸다. 직업윤리를 넘어선  
인간윤리로 설명할 때, 통역사의 중립성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주체  
성 및 능동성과 충돌한다. 언어를 매개로 한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감안할 때, 인간의 언어적 행위는 늘 단순 매개 이상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리콤프와 아렌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통역사,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원 발화자의 말을 적극적  
으로 해석해 내는 통역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타자의 말을 수동적  
으로 옮기는 언어 도판이 아니라 타자가 자기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조력하는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통역사를 근거 지을 철학적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타자의 말이 정당하게 해명되고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약자가 스스  
로의 세계, 스스로의 주체성을 온전히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  
는 통역사의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통의 약자를  
옹호하기 위해 나서는 통역사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주  
제는 별도의 지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박지영, 임향옥. (2021). 저작권과 통역 윤리: 회의통역사의 권리, 책임, 역할  
의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23(2), 55-75.
- 윤성우, 이향. (2018). 번역윤리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번역학연구*, 19(5),

77-94.

- 이민. (2017). 실증 연구에 기반한 통역사의 통역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분석. *통번역학연구*, 21(2), 53-84.
- 이향. (2017). 번역윤리 논쟁: 베이커(Baker) vs 뎀(Pym)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4), 207-226.
- 이향. (2023). 회의통역은 어떻게 통역학의 화두가 되었나. *T&I REVIEW* 13(1), 63-79.
- 이향, 윤성우. (2025). 통역사의 중립성(Neutrality): ‘해석(interpretation)’과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동서인문*, 27, 5-27.
- 정철자. (2020). 국내 사법통번역 인증평가 사례연구: 윤리의식 평가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2), 203-227.
- Angelelli, C. V. (2004a). *Revisiting the interpreter's role*. John Benjamins.
- Angelelli, C. V. (2004b).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endt, H.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옥 번역).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3).
- Arendt, H. (2007). 정치의 약속 (김선옥, 번역). 푸른숲.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Arendt, H. (2017). 인간의 조건 (이진우, 번역).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58).
- Baker, M. (2006/2019).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Routledge.
- Brown, R. M. (1984). *Unexpected news: Reading the Bible with third world eyes*. Westminster Press.
- Chul, C. (2011). A Study on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court interpreters and its legal implication. *통번역학연구*, 14(2), 269-283.
- Grbic, N. (2014). Interpreters in the making: Habitus as a conceptual enhancement of boundary theory? In G.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pp. 91-109). Rodopi.
- Inghilleri, M. (2003). Habitus, field and discourse: Interpreting as a socially situated activity. *Target*, 15(2), 243-268.

- Inghilleri, M. (2008). The ethical task of the translator in the geo-political arena. *Translation Studies*, 1(2), 212-223.
- Inghilleri, M. (2012). *Interpreting justice: Ethics, politics, and language*. Routledge.
- Inghilleri, M., & Harding, S.-A. (Eds.). (2010). *Translating violent conflict* [Special issue]. *The Translator*, 16(2).
- Kalina, S. (2015). Ethical challenges in different interpreting settings. *MonTI*, 2, 63-86.
- Lee, H., & Yun, S. W. (2020). How can we improve the codes of ethics for translators? *Babel*, 66(4/5), 706-718.
- Pym, A. (2012). *On translator ethics: Principles for mediation between cultures*. John Benjamins.
- Pym, A. (2016). A spirited defense of a certain empiricism in translation studies (and in anything else concerning the study of cultures). *Translation Spaces*, 5(2), 289-313.
- Ricoeur, P. (1950). *Philosophie de la volonté I: Le volontaire et l'involontaire* [Freedom and nature: The voluntary and the involuntary]. Aubier.
- Ricoeur, P. (1960). *La symbolique du mal* [The symbolism of evil]. É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69).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essai d'herméneutique*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ssays in hermeneutics]. E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83). *Temps et récit I* [Time and narrative, Vol. 1]. É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86). *Du texte à l'action* [From text to action]. É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Oneself as another]. Éditions du Seuil.
- Ricoeur, P. (1999). 약의 상징 (양명수, 번역). 문학과 지성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0).
- Ricoeur, P. (1999).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이경래, 공역). 문학과 지성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Ricoeur, P. (2002).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 남기영, 공역). 아카넷.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Ricoeur, P. (2006). 타자로서 자기자신 (김웅권, 번역). 동문선.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Ricoeur, P. (2012). 해석의 갈등 (양명수, 번역).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Wadensjö, C. (1998/2013).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gman.
- Yun, S. W., & Lee, H. (2021). Applying Arendt to translation discourse.  
*Filozofia*, 76(2), 128-132.

## **Interpreter agency through the philosophical lens of Ricoeur and Arendt**

**Seong Woo Yun**

Department of Philosoph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ang Lee** (corresponding author, leehyang@hufs.ac.k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Since the ethical turn of the 1990s, interpreting studies has increasingly engaged with questions of interpreter ethics. Scholars such as Wadensjö, Angelelli, and Inghilleri have challenged the long-held principle of neutrality, arguing that interpreters are never passive conduits but active participants in communicative events. Drawing on their work, this study examines the co-constructive role of interpreters across various communication settings and argues that interpreters function as active agents who make consequential ethical decisions—intervening, when necessary, to make the voices of vulnerable parties heard.

To ground this notion of agency in a broader philosophical framework, this study turns to Ricoeur and Arendt. For Ricoeur, human decisions acquire meaning only when they are realized in action. Applied to interpreting, this means that the interpreter is not a passive relay but an acting subject who produces the final utterance in interlingual communications. Since language always points beyond itself toward the reality it designates, what the interpreter must convey is not the surface meaning of words but the “world of the text,” a task that necessarily entails active intervention. For Arendt, speech and action are the means by which human beings reveal themselves in the public realm. Human plurality can be sustained only through the equal exchange of diverse voices; in this sense, interpreting is ethically indispensable to its realization.

**Keywords:** Interpreter ethics; agency; neutrality; Ricoeur; Arendt

키워드: 통역사 윤리, 능동성, 중립성, 리코르, 아렌트

윤성우(제1저자, <https://orcid.org/0000-0002-5695-8061>)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swyun2002@hufs.ac.kr](mailto:swyun2002@hufs.ac.kr)

이향(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2-0025-177X>)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교수

[leehyang@hufs.ac.kr](mailto:leehyang@hufs.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5월 1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5월 3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6월 14일